



우리샵 제공
우리샵은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쇼핑몰이다. 우리샵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만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면 이윤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제품 판매 이윤 90%, 현금으로 돌려줘"… 오픈마켓 시장서 '소비 플랫폼' 새로운 패러다임 열어

우리샵

카카오·쿠팡 등 성장 전략 벤치마킹

소비와 소개만으로 무한한 수익 창출

소비가 곧 소득이 된다.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제품 판매 이윤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 마치 거짓말 같지만, 오픈마켓 플랫폼 '우리샵'(대표 전호근)에서는 가능하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다. '우리샵'은 강력한 리워드(보상) 방식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소비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카카오와 쿠팡의 성장 전략 벤치마킹

'우리샵'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플랫폼에서의 이익은 극도로 제한하고, 이를 바탕으로 쇼핑몰 몸집을 키우겠다는 사업 전략이 있어 가능했다. 실제로 지금은 국내 대표 대기업이 된 '카카오'와 '쿠팡'이 썼던 전략이기도 하다. 과거 카카오는 '무료 메시지'라는 전략을 통해 IT업계 거대 공룡으로 발돋움했다. 또 쿠팡은 '로켓배송'이나 '새벽 배송'과 같은 특화된 배송 전략을 통해서 성장했다.

우리샵은 '리워드'라는 특화 모델을 기업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보통 쇼핑몰에는 '소비자'와 '판매자'만 존재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는 사람이고, 판매자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샵에는 '사업자'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바로 이 사업자가 우리샵 '리워드'의 핵심 키워드이자 성장 동력이다. 사업자는 개인 쇼핑몰 운영자이다. 우리샵에서는 소비자든, 판매자든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나만의 쇼핑몰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가입부터 운영까지 모두 무료이며 쇼핑몰 홈페이지도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직접 디자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리워드' 정책이 '공유와 연결'을 만나 강력한 시너지

사업자가 되어 나만의 쇼핑몰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판매부터 구매까지 모두 이루어진다. 내가 만든 제품을 팔 수 있고,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나만의 쇼핑몰에 노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내가 필요한 제품을 나만의 쇼핑몰에서 직접 사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샵의 '리워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나만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해당 이윤을 리워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부분 쇼핑몰은 리워드를 적립금이나 할인 쿠폰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우리샵은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준다. 제품 판매 이윤의 90%를 리워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우리샵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는 우리샵 사업 전략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공유와 연결'로 이어진다. 우리샵의 사업 모델인 '리워드' 정책이 '공유와 연결'을 만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만약 내가 우리샵을 이용하고 실제로 현금 리워드를 받으면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것이다. 추천받은 지인이 우리샵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것이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면, '공유'와 '연결'이 이뤄진 셈이다. 다시 이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우리샵을 추천한다면 '공유와 연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소비와 소개만으로 '무한한 수익' 창출 가능

이러한 과정 중 나는 내 지인은 물론 '지인의 지인'을 통한 거래에서도 모두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와 '소개'만으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샵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우리샵은 "우리 집 소비는 우리 쇼핑몰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오픈마켓 플랫폼 최초로 '쇼핑몰 분양'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샵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호근 우리샵 대표는 "공유와 연결 속에서 쇼핑하면서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샵의 최대 장점"이라면서 "10년 동안 집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올해 '제2의 창업'을 선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혜 객원기자



전호근 우리샵 대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염증복합체 억제제·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개발 중"

샤페론 호필수 전무(CTO) 인터뷰


호필수 샤페론 전무.

샤페론은 면역 조절 플랫폼 전문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G단백질 수용체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아토피 치료제 '누겔' 개발에 성공했다. 또 차세대 항체 기술인 나노바디(nanobody·기존의 항체 대비 분자량이 십분의 일 정도) 플랫폼으로 면역관문 억제제 '파필리시맙'도 선보였다. 성승용 대표는 면역학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DAMPs 이론을 2004년 최초로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에 발표했다. DAMPs 이론을 바탕으로 2008년 설립된 샤페론은 '염증복합체 억제제'와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샤페론은 JW그룹에서 28년간 다양한 신약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JW C&C신약연구소 대표이사 및 JW그룹 CIO(Chief Innovation Officer) 등을 역임한 호필수 전무를 영입했다. 그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글로벌 제약사인 레오파마에 기술 이전시킨 경험이 있다. 현재 샤페론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혁신신약연구센터장인 호필수 전무에게 회사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샤페론은 어떤 회사인가.

"샤페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주기 자체 나노바디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다양한 타깃에 대한 나노바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중항체'나 '항체-약물 복합체' 등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샤페론은 미충족 수요가 높은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혁신신약연구센터 오픈에 이어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다양한 적응증 확장에 필요한 물질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팀도 발족했다."

-샤페론의 신약 연구 및 개발 현황은.

"현재 혁신신약연구센터에서 저분자 물질 기반의 염증복합체 억제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적응증으로 임상 연구 중이다. 관심 분야는 염증 반응으로 유도되는 건선·원형 탈모증 등 피부질환이다. 기존 치료제 단점인 △짧은 사용 기간 △심각한 부작용 △안전성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 샤페론은 자체 나노바디 플랫폼을 바탕으로 유전공학적 구조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나노바디가 결합된 다가성항체(Multivalent Antibody)를 개발해 다양한 타깃과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나노바디는 △종양 미세환경 등의 조직 침투성이 높고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유전공학적 구조 설계가 수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이중항체 나노바디인 '파필리시맙'이 암세포 크기 감소는 물론 높은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음을 최근 미국 암학회(AACR)에 발표했다."


샤페론 제공
면역 조절 플랫폼 전문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은 '염증복합체 억제제'와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샤페론만의 기술 경쟁력은.

"AIDEN(AI-driven Drug discovery ENgagement system)이라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새롭게 도입했다. AI 전문 인력·장비를 보강하면서 2억4000개 이상의 화합물 구조를 학습시켰다. 또 약물 설계 과정에서 화합물을 제안하는 생성 모델과 신약 개발 단계에서 프로파일을 예측해 주는 모델도 구축했다. 최근 AIDEN 플랫폼을 활용해 염증복합체 저해제 개발에 성공했다. 앞으로 나노바디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던 개발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샤페론은 국내에서 'AI 기반 합성신약 개발'과 '항체 나노바디' 분야에서 기반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모두 보유한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다. 두 분야의 시너지로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방사선의약품치료제(RPT)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샤페론의 향후 계획은.

"올해는 '누겔'과 '누세린'의 라이선스 아웃(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좋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파필리시맙의 기술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또 나노바디 개발 AI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면역 치료제 개발 및 나노바디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샤페론만의 특이적 결과들을 활용해 최적화된 AI 모델까지 만들고자 한다. AIDEN 플랫폼이 완료되면 샤페론의 신약 개발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미혜 객원기자